

한-베트남 FTA 타결에 따른 수출유망상품



CONTENTS

목 차

요 약

I. 한-베트남 FTA 타결내용

- 4 | 1. 한-베트남 경제교류 현황
- 8 | 2. 한-베트남 FTA 타결 주요내용

II. 수출유망상품 및 현지반응

- 10 | 1. 수출유망상품
- 27 | 2. 베트남 현지반응

첨부. 2014 KOTRA 발간자료 목록

요약

□ 한-베트남 FTA가 '12년 협상개시 이후 9차례 협상을 거쳐 '14년 12월 실질적 타결

- '13년 9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양국 교역규모를 700억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동 FTA 협상을 올해 내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음.
 - '14년말 양국 교역규모는 사상 최초 3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
- 상품, 서비스, 투자 등 다룬 포괄적협정으로 한-아세안 FTA 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
 - 대형 승용차, 화물차, 자동차부품, 화장품, 가전 등이 추가 개방
 - 중기수출 확대 및 활용제고, 현지진출 우리기업 보호, 양국 분업구조 발전, 한류콘텐츠 보호 강화 등 의의

□ 가전제품, 화장품, 타이어 등이 관세철폐 효과를 누리며 수출증가 전망

- 베트남의 對韓 수입관세율이 최고 30%에 달하던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LCD/LED TV 등 고급가전은 'Made in Korea' 프리미엄 이미지를 달고 고급품 시장으로 수출 확대 예상
 - 전기밥솥, 믹서기, 전기다리미 등 소형가전도 최고 25%에 달하는 높은 관세 부담없이 베트남 한류 소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전망
- 소형가전 외에 유아용 분유, 화장품 등 중소·중견기업 제품 수출기회 확대
 - 신흥 중산소비층을 겨냥한 합리적 가격의 제품으로 베트남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
 - 전자재 제품에 대한 KS마크 상호인정으로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을 노리는 관련 우리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가능
- 화물차용 타이어, 자동차부품(기어박스) 등 자동차시장 관련제품의 수출길도 열리기 시작

□ 현지 바이어, 현지진출 우리기업 모두 양국 교역 및 투자확대 계기라며 환영

- FTA 이후 한국산 수입 늘리겠다는 바이어 95%, 가격경쟁력 높아질 기대
 - 양국 기업 간 상생협력하는 계기되기를 희망
- 현지진출 우리기업,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오던 베트남이 유망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거점으로 아세안시장 동시공략에 큰 도움

□ 중국, 아세안 대비 높은 관세율로 수출시장 확대 제약 많았으나, 한국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, 한류 등의 효과 잘 살려 유망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필요

I. 한-베트남 FTA 타결 내용

1. 한-베트남 경제교류 현황

□ 베트남은 '05년 이후 8%대의 높은 성장률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신흥시장으로 성장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위축되기는 하였으나, 풍부한 자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제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성장세 지속

<최근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>

	2011	2012	2013	2014(목표)
경제성장률(%)	6.24	5.25	5.42	5.80
1인당 GDP(달러)	1,517	1,749	1,908	2,100
수출(억달러)	969	1,145	1,322	1,454
수입(억달러)	1,067	1,138	1,313	1,541
FDI(백만달러)	15,619	16,348	22,352	na

자료원 : IMF, 베트남 중앙은행, 베트남 통계청

- 외투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%, 수입은 57%
 - 삼성전자의 휴대폰 수출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8%를 차지('14년, 240억달러)
 - 제조업 비중이 50%를 넘는 외투기업들의 원부자재 수입수요
- 투자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육성 절실
 - 외투기업들의 제조업 투자는 늘고 있으나, 베트남 국내에서의 부품소재 조달률은 30% 미만
 - 섬유·봉제 등 경공업 분야 뿐 아니라, 전기전자,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 중
- 대외개방, 자국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을 추구
 - '06년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 시장개방
 - 일본, 호주·뉴질랜드, 칠레 등과 양자 FTA 체결
 - 중국, 한국, 인도 등과는 아세안 차원에서 FTA를 체결
 - 현재 TPP, EU-베트남 FTA 등을 추진 중

□ '92년 한-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

-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6위 수출대상국, 15위 수입대상국
 - '10년 양국 교역량이 130억달러를 기록하며, 최초로 100억달러 상회
 - '13년말 기준, 양국 교역량은 280억달러이며, '14년 10월말까지 250억달러를 기록하여 연말까지 사상최초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

<우리나라의 對베트남 교역동향>

(단위 : 백만달러, %)

	2010	2011	2012	2013	2014(1-10)
수출	9,652(35.0)	13,551(40.4)	15,954(17.7)	21,088(32.2)	18,309(4.4)
수입	3,331(40.5)	5,084(52.6)	5,718(12.5)	7,175(25.5)	6,647(12.1)

주 : ()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

자료원 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-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현지 투자기업 생산과 관련된 원부자재 및 자본재가 주류
 - 철강제품, 산업용 전자제품, 직물, 전자부품, 석유화학 제품 등
 - 최근 삼성전자의 휴대폰 현지생산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급증

<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>

(단위 : 천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3	2014(1-10)
1	집적회로반도체	2,540,779 (35.1)	2,352,830 (5.6)
2	무선통신기기부품	1,525,847 (83.0)	1,621,055 (23.7)
3	합성수지	1,135,908 (28.7)	985,124 (4.5)
4	편직물	941,824 (15.1)	803,071 (4.6)
5	인쇄회로	737,906 (-13.0)	564,694 (-13.4)
6	열연강판	656,717 (70.3)	470,349 (-14.4)
7	기타플라스틱제품	348,237 (-32.7)	346,632 (15.6)
8	화물자동차	211,744 (8.7)	294,990 (86.1)
9	평판디스플레이	742,895 (60.6)	293,225 (-56.1)
10	직물제의류	265,161 (38.6)	263,051 (26.4)

주 : ()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

자료원 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-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 등 섬유제품, 수산물, 농산물 등이며, 이 중 섬유제품은 주로 현지진출 우리기업으로부터의 역수입
 - '12년 의류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했으며, 단일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수입액 10억달러 돌파
 - 휴대폰 부품 등 전자부품 수입도 최근 크게 증가

<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>

(단위 : 천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3	2014(1-10)
1	의류	1,682,627 (55.2)	1,907,822 (39.5)
2	신발	377,255 (29.3)	426,997 (30.7)
3	목재류	231,676 (32.4)	277,061 (47.2)
4	무선통신기기	187,740 (92.8)	260,693 (81.8)
5	기타섬유제품	217,263 (27.3)	209,385 (16.6)
6	새우 등 갑각류	125,623 (9.3)	168,349 (79.6)
7	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	210,986 (157.9)	166,228 (-2.1)
8	오징어 등 연체동물	132,225 (-9.0)	135,236 (28.1)
9	컴퓨터	71,892 (18.5)	122,205 (112.6)
10	수산물가공품	117,686 (7.9)	119,652 (29.5)

주 : ()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
 자료원 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- '13.9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-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700억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합의
 - '13년 기준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는 139억달러 적자
 - 이러한 양국간 교역불균형은 통상관계에 적잖은 부담이긴 하나,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은 베트남 내에서 생산공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총수출에 기여
- 베트남의 고부가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품목도 점차 다양화될 전망
 - '12년 이후 베트남은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수입 수요가 감소했음에도,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상호보완적인 양국 교역관계를 입증

□ 베트남은 미국, 중국,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의 4위 투자대상국

- '92년 수교 이후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증가
 - 현재 3천여개 우리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, '13년말까지 누적 기준 투자금액은 290억4,148만달러 기록
 - 금액 순으로 일본,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 투자진출 3위국에 해당

<한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진출 현황>

(단위 : 건, 백만달러, 신고기준)

연 도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 Q1
건 수	406	293	204	256	267	243	366	76
투자액	4,462	1,804	1,598	2,038	875	757	3,752	534

자료원 : 베트남 투자기획부(MPI)

- 최근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·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 양상
 - 신규로 시장이 개방되는 유통,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 추세
- 투자금액 기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약 50%,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약 34%의 투자 분포
 - 최근 수도 하노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베트남 정부시책 등의 영향과 이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의 협력사 진출, 중국과의 접근성 확대 등으로 북부지역으로의 투자 급증
- 과거 개별, 소규모 투자에서 대형화, 연계형 동반진출 가속화
 - 삼성전자, LG전자, 두산중공업,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대중소 연계 투자형태로 발전, 1차, 2차 협력업체의 진출 증가
 - 대기업 중심, 기술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거보다 부품산업 진출이 늘어나는 여건으로 변화
- 그러나, 베트남의 인건비, 공단 임차료 등이 인상되며 투자비용 급등
 - 외투기업 및 공기업의 최저임금이 '08년부터 매년 10% 이상 인상
 - 하노이 인근 공단 임차료가 '08년 1년 사이에 100% 상승하여 m²당 55~60달러대, 호치민 인근은 80~90달러대를 형성 중

2. 한-베트남 FTA 타결 주요내용

□ '12.8월 한-베트남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 진행

- '14.12.10일 한-베트남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
 -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

□ 추진목적

-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시장 접근성 확대
 - 한-아세안 FTA를 통해 아세안 5개국(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태국)의 관세는 '10년까지 철폐 완료되었으나 베트남은 '13년부터 점진적 철폐
 - *일부 품목의 한-ASEAN FTA 관세율은 MFN 보다 높은 관세 역전현상 발생
 - 한-아세안 FTA는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등의 원인으로 우리기업의 활용률이 38.5%에 머물고 있음.
 - *우리나라가 발효한 FTA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평균 FTA 활용률은 66.9%
-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 보호, 동등한 기회확보 등 필요
 -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3위 투자유치국임에도 불구하고,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미
 -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베트남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도 막대
 - *삼성전자가 현지생산하는 휴대폰은 베트남 수출 1위 품목이며, 전체 수출의 18% 차지

□ 기대효과

- 한-베트남 FTA 체결시 양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

< 한-베트남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>

	GDP 증가	후생 증가	수출 증가
한국	0.19%~0.74%	18억불~57억불	대베트남 수출 26%~28%
베트남	1.47%~3.22%	6억불~14억불	대한국 수출 18~20%

자료원 : 한-베트남 FTA 공동연구 결과

□ 주요내용

- 상품, 서비스, 투자, 지적재산권, 경쟁 등 17개 챕터를 다룬 포괄적 협정
 -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
- '07년 발효된 한-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
 - 베트남은 승용차(3000cc 이상), 화물차(5~20t), 자동차부품, 화장품, 생활가전 등을 한-아세안 FTA 대비 추가 개방
 - 우리나라는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천톤까지 무관세 대우, 건조 또는 냉장된 마늘·생강 추가 개방
 -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

	한-아세안 FTA	한-베트남 FTA
베트남 시장자유화율	-수입액 기준 86.2% -품목수 기준 87%	-수입액 기준 92.2% (7억4천만달러 규모 증가) -품목수 기준 89.2% (상품 200개 추가)
한국 시장자유화율	-수입액 기준 91.7% -품목수 기준 91.3%	-수입액 기준 94.7% (1억4천만달러 규모 증가) -품목수 기준 95.4% (상품 495개 추가)

- '09년 발효된 일-베트남 FTA보다 자유화율이 2.1% 상승
 - 타이어, 면직물, 편직물, 철도차량부품 등이 일본 대비 경쟁 유리
- 한-베트남 FTA가 우리 경제에 주는 의의
 -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확대 및 FTA 수출활용률 제고
 -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
 -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양국간 분업구조 확대발전
 - 지적재산권 규범 도입을 통해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

II. 수출유망상품 및 현지반응

1. 수출유망상품 *현지수요 증가품목, 고관세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

① 고급가전

품목명(1)	고급가전(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LCD/LED TV)	HS Code)	841810, 845020, 841510, 852872
現수입관세율	- 냉장고 : 25% - 세탁기 : 25% - 에어컨 : 20,30% - LCD/LED TV : 35%	경쟁국	태국, 말레이시아, 중국, 인도네시아, 미국, 일본
유망사유	- 삼성, LG 등 한국 대기업에 대한 현지 이미지 매우 좋고, 한류스타가 광고하는 고급가전제품에 대한 인기 높음. - 냉장고, 에어컨 등은 현지 조립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관세철폐되면 고급 완제품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		

- 일본, 유럽 등의 글로벌브랜드 생산기지가 있는 아세안과 중국산 제품이 높은 점유율 차지
 - 5%이하의 저율관세를 바탕으로 아세안 및 중국제품이 가격경쟁 우위
 - 한국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베트남 현지생산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 전체 가전제품의 對베트남 수출규모도 3억5천만달러에 머무르고 있음.

<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>

(단위: 천달러)

순위	국가*	2013	2012	2011
HS 코드 : 8518.10 / 냉장고, 냉동고				
총 수입액		112,383	6,258	10,025
1	태국	80,417	75	493
2	인도네시아	14,964	-	-
3	중국	10,675	786	499
4	한국	3,448	83	52
5	일본	1,873	176	592
6	대만	413	131	199
HS 코드 : 8450.20 / 세탁기(>10kg)				
총 수입액		18,927	8,699	7,299

1	태국	13,161	3,729	2,255
2	한국	3,108	2,253	2,215
3	미국	869	838	304
4	중국	394	418	389
5	이탈리아	383	319	670
6	스페인	267	91	88
HS 코드 : 8415.10 / 에어컨				
총 수입액		323,643	166,272	217,809
1	태국	165,360	90,920	105,476
2	말레이시아	70,371	57,022	95,390
3	중국	46,064	14,012	11,515
4	한국	18,106	209	1,811
5	싱가포르	16,765	24	224
6	네덜란드	3,330	14	3
HS 코드 : 8528.72 / LCD/LED TV				
총 수입액		124,794	290,416	227,779
1	인도네시아	52,208	85,907	59,868
2	중국	35,116	910	698
3	말레이시아	32,399	193,159	148,289
4	태국	2,432	8,187	14,863
5	싱가포르	1,524	57	3,593
6	일본	567	323	319
7	한국	436	776	23

□ 주요 바이어 의견

기업명	Nguyen Kim Trading JSC	특기사항	베트남의 가전소매유통 1위 기업
매출규모('13)	US\$ 330백만	품목	TV, 백색가전, 소형가전
담당자	Ms.Le Bang	직책	Director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트남 전역에 걸쳐 가전양판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수입 가전제품을 취급하며, 최근 들어 백색가전의 판매 비중 증가 - LG·삼성 등이 현지 조립생산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현지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브랜드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. -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완제품(Hitachi, Electrolux, Toshiba 등)의 경우 0~5%의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어 관세철폐 시 이들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큰 도움될 것으로 판단 - 또한 고급사양 제품 등 한국산 완제품의 對베트남 수출확대 예상 		

□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

- 9천만의 인구나 젊은 인구구조, 빠른 도시화의 진행과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브랜드 로열티로 인해 고급가전 시장 급성장 예상
- 베트남으로의 적극적인 투자진출과 마케팅 활동, 베트남 전역에 걸친 유통망 구축과 A/S 서비스는 한류효과와 더불어 고급가전의 시장침투를 모색하는 한국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
- 관세인하는 현지 중상류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사양의 냉장고, 세탁기 등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
- 베트남에서 대형마트 등 현대식 유통채널이 증가하는 만큼 현지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하며, 특히 일본, 서구제품과 경쟁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

② 소형 가전제품

품목명(2)	소형 가전제품	HS Code	851640, 851660, 850990
現수입관세율	- 전기다리미 : 25% - 전기밥솥 : 20% - 믹서기, 주스기 : 25%	경쟁국	중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일본, 인도네시아, 폴란드
유망사유	- 가격대가 저렴한 소형가전은 TV·냉장고 등과 달리 브랜드 의존도가 낮아 우리 중소기업 제품 진출에 유리함. - 지금까지 베트남에 유입되는 소형가전 제품은 글로벌브랜드 생산기지가 있는 아세안과 중국산 제품이 대다수로 각각 0%, 10%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음. - 한류효과를 업고 베트남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은 만큼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		

□ 수입동향

- 일본, 유럽 등의 글로벌브랜드 생산기지가 있는 아세안과 중국산 제품이 높은 점유율 차지
 - 그러나 최근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산 생활용품이 인기를 얻고 있어 전기밥솥, 전기다리미, 믹서기 등의 수입이 늘고 있음.
- 전기밥솥의 경우, 현지 소비자들의 'Made in Korea' 선호도가 높으나, 중국 및 태국산에 비해 높은 관세율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 제약

<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>

(단위: 천달러)

순위	국가*	2013	2012	2011
HS 코드 : 8516.40 / 전기다리미				
총 수입액		8,432	8,310	6,977
1	싱가포르	3,748	9	80
2	중국	2,824	4,053	3,309
3	태국	683	11	104
4	한국	404	195	184
5	말레이시아	272	841	799
6	프랑스	181	125	201
HS 코드 : 8516.60 / 밥솥, 석쇠, 로스터				
총 수입액		103,046	72,015	56,993
1	중국	56,888	32,424	22,780
2	태국	26,993	24,362	21,863
3	한국	5,980	4,987	5,035
4	싱가포르	3,060	153	24
5	인도네시아	2,610	2,048	1,085
6	말레이시아	2,159	1,105	619
HS 코드 : 8509.90 / 믹서기, 주스기				
총 수입액		28,480	20,537	15,584
1	중국	12,971	11,228	8,620
2	싱가포르	10,959	30	2
3	말레이시아	1,657	3,782	3,159
4	인도네시아	1,041	2,975	2,031
5	한국	775	255	193
6	폴란드	284	365	181

* 자료원 : International Trade Centre(ITC) - Trade Map, *2013년 통계는 추정치

□ 주요 바이어 의견

기업명	Dai Phat Loc Tho Co., Ltd. http://yourkitchenhome.com	특기사항	Tiger, Toshiba(일본), Poong Nyun(한국)의 소형가전 베트남 독점공급업체
매출규모('13)	US\$ 500만	품목	밥솥, 주전자, 포트기, 압력 밥솥 등 소형 가전제품
담당자	Mr. Vo Huu Trung	직책	부사장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산 일부 제품은 일본 유명브랜드 제품보다 비쌀 정도로 한국 제품들은 수입관세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겪고 있었음. (한국은 20~25%, 아세안은 0%, 중국은 10%) - 한국 제품의 강점은 우수하고 안정적인 품질로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산 원산지 제품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중국과 아세안산 원산지 제품 대비 매우 우수 - 관세철폐 되면 얻게 될 가격경쟁력으로 기존 수출제품뿐 아니라 새롭게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선택폭 확대 예상 		
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 제품의 품질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고 하더라도 베트남으로의 수출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함. 예를 들어 Cuckoo 밥솥이 Tiger 제품과 같은 가격에 팔린다면, 현지 소비자들은 분명히 Tiger를 선택할 것임. - 가격에 민감한 베트남 시장에서 고가전략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제품라인별로 품질과 가격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. - 한국기업들이 정기적으로 30%와 같은 높은 비율로 수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 일본기업들은 수출가격을 급속히 올리지 않으며 올리더라도 5~10%내에서 인상함. 		

기업명	Kha Duy Co.,Ltd.	특기사항	소형가전 유통전문기업
매출규모('13)	US\$ 100만달러 미만	품목	소형가전
담당자	Mr. Nguyen Dzung	직책	부사장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구매요인이기 때문에, 수입관세 철폐는 한국 제품들이 베트남에서 판매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. 		
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아세안 및 중국산 제품 대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격의 차이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함. 		

□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

- 지금까지 베트남의 가전제품 주요 해외 공급처는 중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일본임.
 - 중국이 여전히 베트남의 가장 큰 공급국이고 다수의 일본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지만, 베-중간 영토분쟁에 따라 중국산 기피 현상으로 최근들어 현지 소비자들은 아세안산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추세
- Cuckoo, Cuchen, Hurom, Poongnyun, NUC, Hanil과 같은 한국 제품들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점차 알려지고 있으며, 한류효과가 제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
- 가격대가 낮은 소형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임.
 - 중국 및 아세안과 비교해서,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가장 낮았으나, 관세철폐 되면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.
- 한국기업들은 아래 베트남 바이어들의 조언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음.
 - 제품 수출 가격은 특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.
 - 다양한 소비시장별로 다양한 가격책정 통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됨. 예를 들어 일본의 국내 소비용 제품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용 수출 제품들은 개발도상국 시장 겨냥해 생산된 제품들과 차별화 됨.
 -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하는게 바람직하나 적어도 제품 디자인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현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.
 - 자체 브랜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OEM 수출이 될 수 있음. 현지 수입상들은 현지 수입상들에 의해 고안된 상표에 따라 한국에서 가전 제품을 주문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베트남 바이어들은 기꺼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.
 - 새로운 브랜드를 처음 취급하는 현지 바이어들은 신제품 소개를 위한 마케팅, 관측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므로 한국 공급업체의 적정 지원을 통한 상호간 Win-Win 전략이 필요

③ 화장품(스킨케어)

품목명(3)	화장품(스킨케어)	HS Code	3304
現수입관세율	10~20%	경쟁국	태국, 프랑스, 일본, 미국
유망사유	- 한국산 화장품의 對베트남 수출은 '11-'13년 연평균 17% 증가 - 한류 영향으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은 베트남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중 - 한국산 화장품은 한-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나, 한-베트남 FTA로 관세철폐되면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예상		

□ 수입동향

- 중국, 아세안 등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한국산 화장품은 베트남 시장점유율 1위
 - 한국은 얼굴, 입술, 눈 화장용 메이크업 제품에서 對베트남 1위 수출국이며, 스킨케어 제품은 P&G, 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 및 중국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태국에 이어 2위 수출국
 - 한류 영향으로 일부 한국산 제품은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올라서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,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태국산으로부터 최근 위협을 받고 있음.

<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>

(단위: 천 달러)

순위	국가*	2013	2012	2011
	총 수입액	94,366	94,752	92,145
1	한국	31,335	20,931	16,649
2	태국	21,165	19,687	25,550
3	싱가포르	9,345	15,322	9,328
4	프랑스	6,889	8,319	10,426
5	일본	5,724	5,855	5,046

* 자료원 : International Trade Center

□ 주요 바이어 의견

기업명	GIA NGUYEN Cosmetics	특기사항	한국산 화장품 수입업체
매출규모('13)	US\$ 50만	품목	화장품, 약용화장품
담당자	Mr.Nguyen Dang Danh Thuy	직책	Director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산 화장품은 평균 20%의 수입관세가 부과되어 태국, 싱가포르 등이 받는 무관세 혜택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세 - 베트남 소비자들의 'Made in China'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자 중국기업들의 태국 등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- 한국산 화장품 관세철폐되면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태국·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- 관세철폐로 한국산 제품 수입폭을 확대할 의향이 있음. 		
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장품 성분과 기능, 효과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마케팅을 병행하면, 저품질의 중국·태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		

기업명	BELLA COSMETICS	특기사항	2000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
매출규모('13)	US\$ 70만	품목	화장품
담당자	Ms.Truong Bich Ngoc	직책	Director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베트남 현지에서의 인기는 높지만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높은 러닝코스트와 관세 부담 -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화장품은 하이엔드 제품으로 분류되지만, 여전히 현지인들은 미국, 유럽, 일본산 원산지 제품을 더 고급품으로 인식 - 화장품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재와 낮은 구매력으로 중국산 위조상품 및 일부 저품질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 - FTA로 수입관세가 없어지면, 마케팅 비용 및 고객서비스 비용 절감 가능, 대형 구매 계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 		
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트남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한류가 한국산 화장품의 경쟁 포인트로 한류가 현지인들의 뷰티트렌드를 선도하는 만큼 화장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류 인기의 꾸준한 뒷받침이 필요 		

□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

- 평균연령 30대 초반의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는 베트남은 뷰티·패션 등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수용하는 편으로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뷰티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
- 베트남에서 한류는 현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, 한국 유명 배우·가수의 스타일을 닮고자 하는 욕구가 큼.
 - 이들 젊은 소비자들은 한국산 BB크림, 에어쿠션, 발효에센스 등에 열광하며 현지에서 평판이 좋음.
- 수입관세 철폐로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, 미국, 유럽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.
- 한편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하는 중견·중소 규모의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품질 기준의 충족 및 베트남내 적정 파트너 선택에 신중해야 함.
 - 관세철폐로 현지 수입업체 및 딜러의 제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제품 품질, 포장, 현지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 부문에서 차별화된 진출전략이 필요

④ 유아용 조제식품 (유아용 분유)

품목명(4)	유아용 조제식품 (유아용 분유)	HS Code	190110
現수입관세율	10%	경쟁국	싱가포르, 태국, 말레이시아, 덴마크, 네덜란드, 프랑스
유망사유	- 매년 100만명의 신생아 탄생. 높은 젊은층 인구비중과 가구 소득의 증가,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장확대 예상 - 현지 소비자들의 서구제품 및 한국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해 잠재수요 높음.		

□ 수입동향

- 싱가포르, 태국,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수입과 더불어 아일랜드, 덴마크, 스위스 등 유럽산 제품의 수입이 대부분

- 최근 우리나라 관련 제품들이 중국 등지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개
- 한류 등에 힘입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식품류에 대한 인기와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 증가

<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>

(단위 : 천달러)

순위	국가*	2013	2012	2011
총 수입액		172,733	268,890	118,867
1	싱가포르	37,165	61,485	47,181
2	아일랜드	31,902	14,836	9,021
3	태국	23,634	45,506	17,504
4	덴마크	14,461	36,984	15,178
5	말레이시아	11,907	34,283	1,631
6	스위스	8,559	5,265	35
7	프랑스	7,040	8,969	3,449
8	한국	6,095	9,082	5,682

* 자료원 : 국제무역센터 (ITC) - TRADEMAP *2013년은 추정치

□ 주요 바이어 의견

기업명	Nam Duong JSC	특기사항	한국 남양유업 제품의 독점 수입유통업체
매출규모('13)	-	품목	유아용 조제식품
담당자	Mr. Tran Thi Thu Hien	직책	Marketing Manager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양유업의 'XO', '아이엠마더' 브랜드의 독점 판매업체로 현재 한국산 제품은 아세안 원산지 제품 5% 대비 10~20%의 높은 관세 부과 - 관세가 없어지면, 베트남 내수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판매 확대 예상 - 단 한국산 제품은 미국·유럽산 대비 브랜드 인지도면에서 열위에 있고 아세안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 - 한류 효과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,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만큼 제품 판촉을 위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요구됨 		

□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

- 베트남은 유아용 식품 관련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전반적인 구매력 부족에도 불구하고, 2013년 관련 시장 성장률 16% 달성
- 현지인들의 소비수준 향상과 자녀 보육비에 대한 지출 증가, 일하는 여성이 많아 제품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음.
- 수입제품의 경우 활발한 판촉활동과 높은 품질로 인해 로컬 제품 대비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편임.
- 한국산 제품은 아직까지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지만 한류 효과로 인해 한국산 소비재 전반, 특히 한국산 식품을 중심으로 기회 확대 예상
- 단,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만큼 가격 경쟁뿐 아니라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판촉과 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필요

⑤ 상용차(트럭)

품목명(2)	상용차(트럭)	HS Code	8704
現수입관세율	≤ 5MTs: 68% > 5MTs~10MTs: 50% > 10MTs~20MTs: 30% > 20MTs~24MTs: 20% > 24MTs~45MTs: 10, 15, 20% > 45MTs: 0% ◆ 특별용도 트럭(냉장트럭, 쓰레기 수거 차량, 유조 차량, 후크 리프트 트럭) : 10, 15, 20%	경쟁국	중국, 태국, 일본, 인도, 인도네시아
유망사유	-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상용차 인기 증가 - 주요 경쟁국은 중국, 일본, 태국이며, 한국산은 관세혜택이 없는 반면, 아세안과 일본, 중국산 상용차는 낮은 관세혜택 - 한국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독보적인 지위 구축 가능		

□ 수입동향

- 트럭의 경우, 최근 수입물량이 늘고 있으며, '13년 기준 6억달러 규모
 - 중국이 2억1천만달러 규모로 수입대상국 1위이며, 점유율 35.8%
 - 한국은 '13년 기준 2위 수입대상국이며, 수입규모는 1억5천5백만달러로 점유율은 25.6%
 - 이 외에 일본으로부터의 직수입과 더불어 태국, 인도네시아 등 일본 제조업체들의 아세안 생산기지로부터의 수입도 있음.

- 버스의 경우, 우리나라는 최대 수입대상국
 - '13년 기준, 베트남의 총 수입규모는 1억9백만달러이며, 이 중 한국산 제품은 5천6백만달러 규모로 51%의 시장 점유
 - '13년도 들어 중국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일본산과 함께 베트남 버스 시장은 한중일 각축 양상

<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>

(단위 : 천달러)

순위	국가*	2013	2012	2011
HS 코드 : 8704 / 트럭				
총 수입액		608,811	314,295	432,386
1	중국	217,901	119,883	163,727
2	한국	155,658	71,848	90,265
3	태국	129,361	67,972	75,510
4	일본	86,885	19,159	47,146
5	인도	8,273	18,636	19,443
6	인도네시아	2,993	6,700	13,140
HS 코드 : 8702 / 10인승 이상 공공 운송 차량(밴, 버스)				
총 수입액		109,149	17,698	6,505
1	한국	56,085	14,761	5,416
2	중국	42,111	1,244	-
3	일본	10,869	1,558	782
4	미국	69	100	-

* 자료원 : International Trade Centre(ITC) - Trade Map *2013년은 추정치

□ 주요 바이어 의견

기업명	Nam Viet Motor	특기사항	- 현대자동차(중대형 트럭, 버스) 공식 수입유통업체 - 중대형 트럭 부문 현대자동차 최대 딜러
매출규모('13)	US\$ 1억	품목	현대트럭(5MTs 이상 40MTs 이하), 버스, 앰블런스 등 특별용도 차량
담당자	Mr. Nguyen Thanh Tu	직책	부사장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- 한국산은 현재 아세안 뿐 아니라 중국·일본산 제품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음. - 한국산 트럭에 적용되는 수입관세가 없어지면,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		

기업명	Do Thanh Auto	특기사항	현대자동차(소형트럭, 버스)의 공식 수입유통 및 조립업체
매출규모('13)	US\$ 8천만	품목	소형 트럭(10MTs 미만), 버스(29 ~ 45인승)
담당자	Mr. Nguyen Van Tinh	직책	Director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- 한국산에 대한 관세인하는 베트남 고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며, 한국산 상용차의 수입 증가로 이어져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		
한국산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	- 중국산 품질이 낮지만 낮은 가격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, 가정에서 여전히 선택받고 있음. - 한국제품은 현지 운송업체들 사이에서 선호됨을 유념하여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 확대 필요		

□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

- 베트남 시장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및 꾸준한 산업화와 도시화, 아직까지 작은 규모의 상용차 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은 시장
 - 한국 상용차는 우수하고 안정적인 품질 덕분에 베트남 시장에서 좋은 입지 구축
- 현대기아 등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다수의 베트남 트럭·버스 제조업자, 수입업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

- 2014년 베트남 정부의 트럭 적재량 규제로 인해 트럭 수요 급증
 - 아직까지 한국산 자동차는 베트남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며, 현지 수입상들은 중국 브랜드인 Dongfeng, HOWO 등의 업체로부터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실정
 - '14년 들어 중국산 수입이 200% 증가한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공급 부족과 저렴한 가격에 기인

⑥ 타이어 (버스 및 화물차용)

품목명(6)	타이어 (버스 및 화물차용)	HS Code	401120
現수입관세율	10~25%	경쟁국	일본, 태국, 중국, 인도
유망사유	- 베트남 경제성장으로 버스 및 화물차 수요 증가. 이에 따라 타이어 수요도 크게 확대 중 - 연간 수입규모 2억달러로 일반 승용차용 수입시장 보다 2배 이상 크며, 현지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함. - 아세안 제품이 5%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열위였으나, FTA 관세철폐로 시장 확대 가능		

□ 수입동향

- 태국, 중국,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90%를 이상
 - 우리나라의 '13년 수출액은 321만달러로 5위 수입대상국

<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>

(단위 : 천달러)

순위	국가*	2013	2012	2011
	총 수입액	211,740	183,702	157,747
1	태국	89,881	83,865	73,772
2	중국	86,988	27,179	21,599
3	인도	18,247	16,604	17,052
4	일본	7,961	37,647	23,351
5	한국	3,212	2,566	4,405
6	말레이시아	2,903	19	578

* 자료원 : 국제무역센터 (ITC) - TRADEMAP *2013년은 추정치

□ 주요 바이어 의견

기업명	Phuc Thien Co.,Ltd	특기사항	한국·인도네시아산 타이어 직수입, 현지 생산 금호타이어 딜러
매출규모('13)	-	품목	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
담당자	Mr.Le Van Truc	직책	Sales Director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태국에서 수입되는 타이어(미쉐린, 브리지스톤)가 낮은 관세 혜택(5%)으로 높은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보 중 - 같은 한국브랜드 제품이라도 Made in Korea 제품이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생산되는 동일 브랜드 대비 품질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. - 관세철폐 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입 증가,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, 경쟁력 향상 예상 - 타이어 제품의 특성상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,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통한 생산 및 판매비용 유지가 관건 		

□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

- 화물차 및 버스용 차량에 대한 베트남 국내 수요 증가로 타이어 수입 수요 또한 동반 증가 예상
- 한국산 타이어는 베트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, 현대기아 완성차의 수입 증가로 교체 수요 기대 가능
- 현지에서 조립되는 트럭과 버스의 경우에도 한국 제품 선호로 한국산 타이어 수요 증가. 관세철폐로 가격여건이 나아지면, 현지 바이어들의 한국산 타이어 채택 비중 증가 예상
-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타이어 공급업체는 베트남에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요구되며, 현지 조립업체, 바이어/유통업체, 트럭서비스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

⑦ 자동차 부품 (기어박스)

품목명(7)	자동차부품(기어박스)	HS Code	848340
現수입관세율	10%	경쟁국	중국, 일본, 대만
유망사유	- 자동차 조립산업용이 수요의 대부분이나, 최근 트럭용 에프터마켓용으로 수요 확대 중 - CKD 핵심부품으로 현지 조립업체에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상, 관세인하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며, 향후 트럭용 부품 교체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잠재성 있음.		

□ 수입동향

- 중국산의 베트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, 한국산은 '12년부터 급감
 - 완성차 제조용은 베트남에서 현지 조립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자국 생산품을 현지에 수출하는 구조

<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>

(단위 : 천달러)

순위	국가*	2013	2012	2011
총 수입액		125,144	114,020	125,103
1	중국	68,414	27,172	27,358
2	미국	11,411	2,439	2,030
3	일본	11,167	13,607	16,824
4	대만	7,414	3,529	4,251
5	싱가포르	7,333	665	383
6	독일	6,486	7,052	5,290
7	한국	2,978	24,561	16,556

* 자료원 : 국제무역센터 (ITC) - TRADEMAP

* 2013년은 추정치. 차량용, 선박, 산업 기계용 기어박스를 모두 포함

□ 주요 바이어 의견

기업명	Truong Hai Auto(THACO)	특기사항	기아 승용차, 현대 트럭 현지 조립, 수입업체
매출규모('13)	US\$ 699백만	품목	기어박스 등 CKD 부품
담당자	Mr.Truong Binh Nguyen	직책	Marketing Manager
한-베 FTA가 한국산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베트남내 조립을 위해 해외 자동차 회사로부터 기어박스를 CKD 부품으로 수입 - 현지 차량 생산대수가 아직까지 제한적인 만큼 베트남내 자체 생산을 하지 않으며, 차량모델별 연간 10만대의 차량이 생산될 때 수지타산이 맞음. - 한국산 기어박스의 관세가 10%에서 0%로 낮아질 경우 부분적으로 현지에서 조립생산되는 한국브랜드의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. 생산비 절감은 판매가 인하로 이어져 경쟁력 제고 예상 		

□ 한국산 진출기회 분석 및 진출방안

- 기어박스는 완성차 핵심부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, 현지 조립생산용 수요와 트럭용 에프터마켓 부품 수요로 분류되나 아직까지 조립생산 용도가 대부분을 차지
 - 완성차 제조용 부품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CKD(Complete Knock Down) 자동차 조립 외투기업들이며, 브레이크와 부품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의 수입은 외투기업 본사에 의해 엄격하게 지정·관리됨.
- 관세철폐로 완성차 제작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나, 전체 완성차의 총 부가가치를 놓고 볼 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단, 향후 트럭용 에프터마켓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, 이 분야 시장선점을 위한 공략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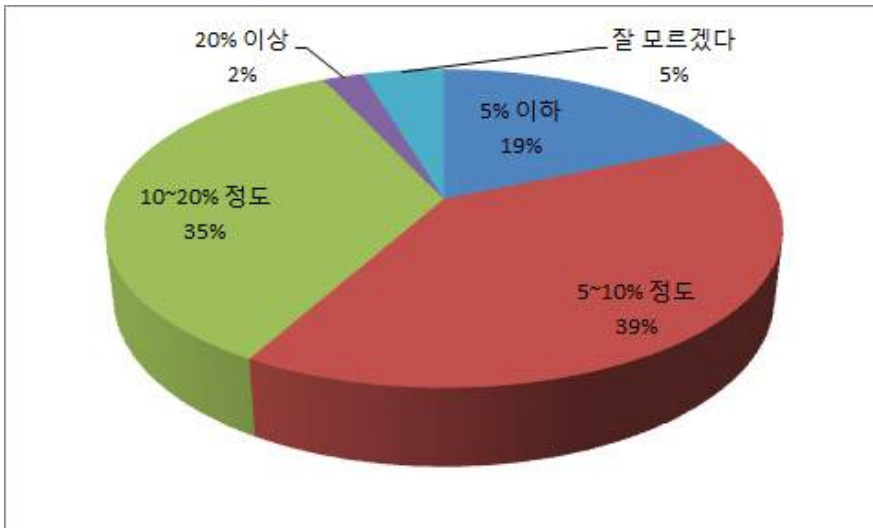
2. 현지반응

□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과의 FTA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

*'14.12월 베트남 바이어 166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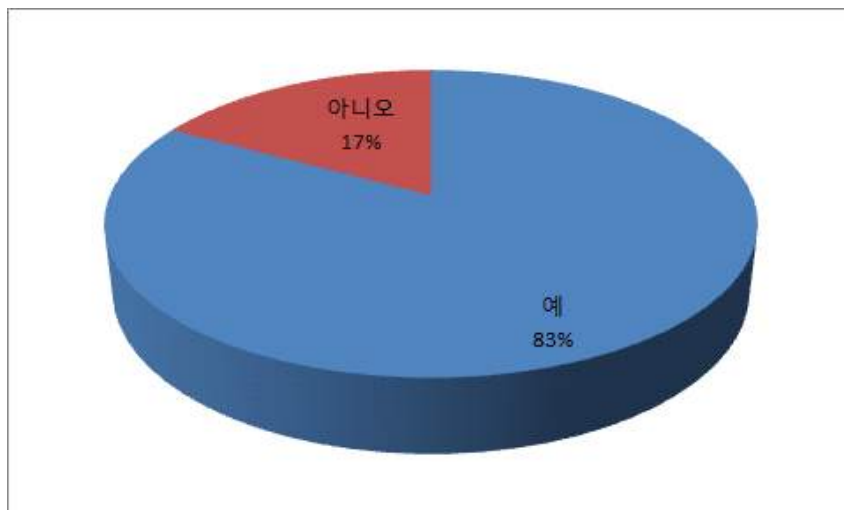
- 응답자의 95%가 한-베트남 FTA 이후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
 - 이 중 10% 이상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7%

Q: 한-베트남 FTA 발효되면,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얼마나 더 늘리시겠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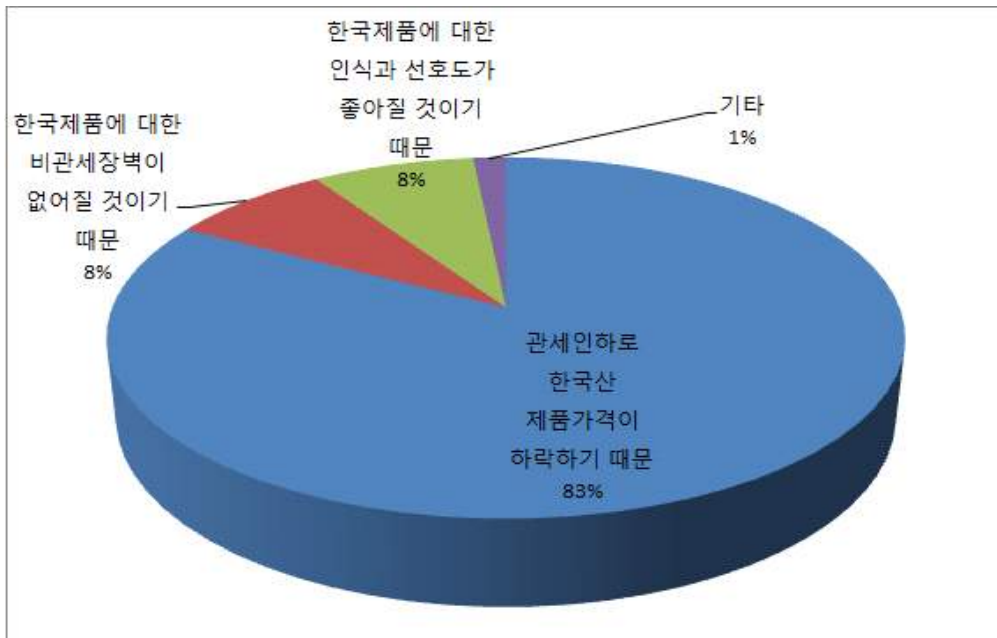
- 응답자 중 83%가 이미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,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를 상회하여 수입선 전환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

Q: 한국으로부터 이미 수입을 하고 계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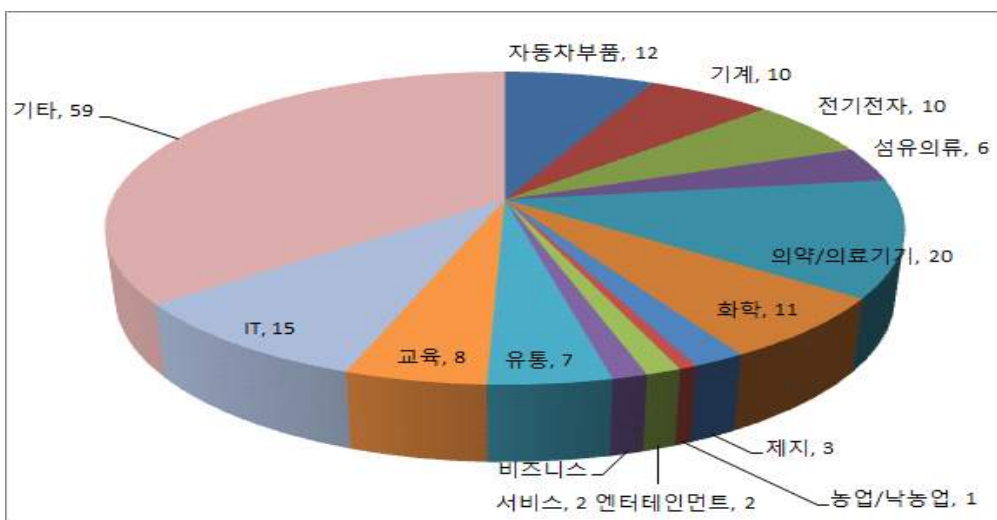
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거나, 수입선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관세인하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83%
 -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, 높은 가격으로 전면적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가 반영
 - 한국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적 견해도 피력

Q: 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거나, 수입선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

- IT, 의약/의료기기, 자동차부품, 전기전자, 기계 등의 분야에서 한국제품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

Q: 향후 어떤 분야의 한국제품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

- **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도 한-베트남 FTA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**
 - 대부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거나,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현지 조립가공 후 제3국 수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,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 보다는 교역확대를 통한 현지 시장여건 개선에 더 큰 기대
 - IT, 화장품 등 생활용품, 가공식품 등이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개척해 나갈 선두주자로 꼽힘.
 - 아울러 한국산 수입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물류, 소매유통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여 이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 - 중국 및 아세안 등 특혜관세를 받는 제품들과의 경쟁여건 다소 개선
 - 한국제품 인기가 상승함에도 중국과 아세안산이 저율관세 등을 바탕으로 현격한 가격우위 고수
 - 한-베트남 FTA는 한국제품의 가격경쟁 개선에 다소나마 긍정적
 - 관세인하 외에 우리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 계기 되기를 희망
 - 복잡한 원산지 증명, 불투명한 통관절차, 외투기업 진출제한 등은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전면확대에 걸림돌로 작용
 - **FTA를 활용, 베트남 시장 맞춤형 경제한류 붐 조성 필요**
 - 소비시장 세분화, 소비계층별 맞춤형 제품 개발, 한류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 등 기존과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 필요
 - 한편, 산업별 또는 수출 및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FTA의 효과에 대한 온도차
 - 예컨대 대부분의 품목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섬유·봉제 업종의 경우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, 한-베 FTA보다는 TPP, 베-EU FTA 등을 활용한 주력수출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더 큰 관심.
 - 단, 식품 산업과 같이 교역확대를 위한 관세인하, 기술협력이 절실한 부문의 경우 양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.

<베트남 현지진출 우리기업 의견조사>

기업명	품목/분야	의견
화승	신발	현지 생산되고 있어 FTA로 인한 관세혜택은 거의 없을 전망이나,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,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의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
락앤락	식품용기	그동안 베트남 내수용 제품은 중-아세안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공장 생산제품을 수입해 왔음. 한-베트남FTA 관세인하를 통해 중국산을 한국생산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베트남에서 한국산 프리미엄을 확보하여 종합 유통업으로 성장할 것임.
CJ대한통운	물류	한-베트남 FTA로 한국산 수입 및 유통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므로, 운송 및 물류관리 분야 매출 증가 기대
CJ	식품	한국 농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 베트남산 농식품 자재를 한국에 많이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며,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
롯데백화점	소매유통	FTA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한국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. 특히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수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롯데호텔	숙박/서비스	FTA를 통한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는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임. 이에 숙박업 등 한국 서비스업의 현지 비즈니스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
엑츠원	IT(S/W)	FTA를 통한 교역 및 투자증가는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온라인 마켓, 모바일 광고 등 IT시장에 큰 수요를 일으킬 것임.
FTN	섬유의류	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 시 적용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완화되기를 희망. 아울러 관세인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이 베트남 내수시장에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
웅킴	식품	김치 등 한국산 식품을 수입 유통하는데 적용되는 까다로운 위생검역 조치들이 FTA를 계기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
VIETDUYEN Trading	화장품	현재의 높은 관세가 낮아지면, 중국 및 아세아 제품과의 가격경쟁이 가능해져 현지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

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

□ GMR (Global Market Report)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4-001	경제제재 완화대비,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	2014.1
14-002	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	2014.1
14-003	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- 1편 -	2014.3
14-004	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- 2편 -	2014.3
14-005	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- 3편 -	2014.3
14-006	한미 FTA 발효 2년, 대미 수출성과 분석	2014.3
14-007	한-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	2014.3
14-008	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	2014.3
14-009	한-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	2014.4
14-010	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- 1	2014.4
14-011	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- 2	2014.4
14-012	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- 3	2014.4
14-013	한-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	2014.4
14-014	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	2014.4
14-015	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	2014.5
14-016	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	2014.5
14-017	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	2014.6
14-018	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	2014.6
14-019	변화기의 쿠바, 우리기업 접근전략	2014.6
14-020	남아공 대선과 산업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	2014.6
14-021	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	2014.6
14-022	한-EU FTA 3주년 효과분석 및 성공사례	2014.6
14-023	러시아 환경산업 분석 및 진출 방안	2014.6
14-024	미국 시장 핵심 소비계층 공략 방안	2014.6
14-025	한-EU FTA 및 국가브랜드 관련 유럽바이어 반응조사	2014.7
14-026	2014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	2014.7
14-027	2014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	2014.7
14-028	중동 EPC 기업 현황 및 협력방안	2014.7
14-029	미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통상 전략 분석 - 2014	2014.8

	미국-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전망	
14-030	비셰그라드를 공약하라 - 중부유럽에서 펼쳐지는 한·중·일 삼국지	2014.8
14-031	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	2014.8
14-032	일본 신 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	2014.8
14-033	일본의 중국인 관광객(요우커) 유치 전략	2014.8
14-034	EU의 수입품 통제·관리 현황 및 시사점	2014.9
14-035	2014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	2014.10
14-037	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둔화 요인과 시사점	2014.10
14-038	미 중간선거 결과 이후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	2014.10
14-039	한일 교역규모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	2014.10
14-040	엔저에 따른 일본 수출환경 변화와 KOTRA 대응전략	2014.11
14-041	경쟁국 對유럽 M&A 현황 및 시사점 - 1편 -	2014.11
14-042	경쟁국 對유럽 M&A 현황 및 시사점 - 2편 -	2014.11
14-043	2015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	2014.12
14-044	미국 서부 물류대란 현황과 우리기업 대응방안	2014.12
14-045	TP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	2014.12
14-046	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	2014.12
14-047	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방안	2014.12
14-048	일본 총선(12.14) 전망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	2014.12
14-049	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	2014.12

□ KOCHI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4-001	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	2014.1
14-002	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	2014.2
14-003	[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] 2014 중국 경제 전망	2014.2
14-004	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	2014.3
14-005	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: 분야별·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	2014.4
14-006	[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]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향후 전망	2014.11

□ KOTRA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4-003	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	2014.2

14-004	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	2014.2
14-005	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&A	2014.4
14-006	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규대조표	2014.4
14-008	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	2014.5
14-009	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	2014.5
14-010	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	2014.5
14-011	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	2014.5
14-012	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	2014.5
14-013	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	2014.5
14-015	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	2014.5
14-016	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	2014.5
14-017	2013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	2014.7
14-018	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	2014.6
14-019	고객만족 실천가이드	2014.6
14-020	2014 U턴기업지원가이드	2014.7
14-021	2014 외국인투자가이드	2014.7
14-022	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요약 번역본	2014.7
14-023	SEOUL FOOD 2014 결과보고서	2014.7
14-024	러 현지기업 실태 설문조사	2014.7
14-025	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상권 (세계편)	2014.8
14-026	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중권 (아시아 대양주편)	2014.8
14-027	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하권 (중국편)	2014.8
14-028	벨라루스 투자실무가이드	2014.8
14-029	Invest KOREA 2013년도 연차보고서	2014.9
14-030	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(October 2014 Edition)	2014.9
14-031	2015년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 (국가 및 무역관별)	2014.10
14-032	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CSR 요구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	2014.10
14-033	KOTRA 국제개발협력사업 가이드북	2014.10
14-034	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종합 가이드북	2014.10
14-035	미국 투자실무가이드	2014.11

14-036	중동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GUIDEBOOK	2014.11
14-037	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	2014.11
14-038	U턴기업 지원제도	2014.11
14-039	세계로 뻗는 우리기업 성공스토리	2014.11
14-040	2015 Guide to Living in Korea	2014.12
14-041	2015 韓國生活 가이드ブック	2014.12
14-042	2015 韓國 生活指南	2014.12
14-043	주요국 투자유치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 조사	2014.12
14-044	중동 산업다각화 보고서	2014.12
14-045	동유럽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	2014.12
14-046	2015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	2014.12
14-047	[별권] 2014 ASEAN 주요국가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(베트남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미얀마, 말레이시아)	2014.12
14-049	2014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	2014.12
14-050	2014 외국인투자기업 디렉토리	2014.12

□ 설명회자료

번호	제목	발간일자
14-001	2014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	2014.1
14-002	2014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	2014.1
14-004	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	2014.1
14-005	개성공단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설명회	2014.3
14-006	韓中服務産業优秀企業投資交流會	2014.3
14-007	중국 개혁개방 2.0시대 -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설명회	2014.3
14-008	아프리카 중소형 플랜트 협력 포럼	2014.3
14-009	양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설명회	2014.4
14-010	(서울식품전 연계) 한중 식품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설명회	2014.5
14-011	2014 Global Project Plaza	2014.5
14-012	미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	2014.5
14-013	쿠바 투자환경 설명회	2014.5
14-014	2014 국제개발은행(MDB) 조달 설명회	2014.6
14-015	미국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설명회	2014.6

14-016	Europe Business Week 2014 설명회	2014.6
14-017	중국시장 IP보호, 리스크와 기회	2014.6
14-018	한국투자환경 설명회	2014.7
14-019	제 16차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	2014.7
14-020	전문가가 알려주는 中 소비재시장 진출 체크포인트	2014.8
14-021	Korea - India Business Forum	2014.9
14-022	글로벌 통상포럼	2014.9
14-023	방글라데시 비즈니스 설명회	2014.9
14-024	MITSUI-NANO GAPS 사업설명회	2014.9
14-025	Global Development Fund Project Plaza	2014.9
14-026	Opportunities at Osong Bio-Valley	2014.9
14-027	Korea-Africa industry Cooperation Forum	2014.10
14-028	2014 유엔 조달 플라자	2014.10
14-029	Open Technologies In KOREA	2014.10
14-030	제11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	2014.10
14-031	中韓相互合作的潛力産業IR	2014.10
14-032	Korea, your Gateway to China & Beyond	2014.10
14-033	한일 경제협력, 그 새로운 상생을 모색 -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즈음하여	2014.10
14-034	중국·베트남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	2014.11
14-035	중동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설명회 발표자료집	2014.11
14-036	슬로바키아 투자진출 설명회	2014.11
14-037	2014 한·대만 산업협력포럼	2014.11
14-038	중양아시아 진출전략 세미나	2014.11
14-039	CIS/Turkey-Europe Partnership Plaza	2014.11
14-040	엔저 이후 수출환경변화와 대응전략	2014.11
14-041	한-중동 산업다각화 협력포럼 - 중동 산업다각화 동향 및 유망제조설비 설명회	2014.11
14-042	'다문화 무역인 클럽' 취.창업 포럼	2014.11
14-043	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7차 수요포럼	2014.12
14-044	2014 해외투자 성공전략 워크샵	2014.12
14-045	일반물자 정부간(GtoG) 거래제도 설명회	2014.12
14-046	2014 투자유망국 비교포럼	2014.12

작성자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|
| ◆ 호치민무역관 | 홍석균 과장 |
| ◆ 하노이무역관 | 정상현 과장 |
| ◆ 통상지원총괄팀 | 양은영 팀장 |

Global Market Report 14-050

한-베트남 FTA 타결에 따른
수출유망상품

- 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행인 | | 오영호 |
| 발행처 | | KOTRA |
| 발행일 | | 2014년 12월 |
| 주소 |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우 137-749) |
| 전화 | | 02) 3460-7114(대표) |
| 홈페이지 | | www.kotra.or.kr |

Copyright © 2014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